

구약성서를 통한 노동의 사회윤리적 의미

한승진

공주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박사과정

esea@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 II. 노동의 위기와 현실
- III. 노동의 구약성서적 의미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노동은 인간 삶의 핵심 요소로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은 자신의 노력을 자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직접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활동이며, 자연의 소재를 가능한 한 모든 생산 가치로부터 효과적인 사용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보다 인간다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고귀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힘들어 피하고 싶지만, 이는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인간의 활동이다.

현대인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사회에 기여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에 따른 정리해고의 위협, 불안한 임금구조, 장시간 노동,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현대 산업사회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여가와 복지, 문화의 창출보다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며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당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노동관의 변질을 가져왔고 노동의 의미와 목적, 수단 등에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인간은 노동의 본질과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인간은 상품자본에 의해 평가되는 노동, 대체가능한 활동의 노동으로 평가 절하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 본다. 오늘 우리의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로서 노동의 위기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까? 더욱이 기독교는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세계관을 심어준 종교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필요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과연 기독교는 오늘의 노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인 토대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을 통하여 이러한 물음과 응답의 기저(基底)로서 기독교 신앙의 전거(典據)인 성서 중에서 구약성서를 오늘의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해 나가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¹⁾ 이 논문은 구약성서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성서 구절의 어원을 깊이 파고들어 어원을 분석하거나 주석을 다는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 논문이 갖는 성서 활용의 범위이고 한계이다. 보다 깊은 성서 구절의 심층적 어원분석과 배경사 혹은 해석사는 성서학자들의 몫으로 하고, 이 논문에서는 시급히 제기되는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 구약성서를 통한 노동의 사회윤리적 의미를 제시하는 하나의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구약성서에 집중하기에 다루지 못하는 신약성서와 종교개혁 이후의 노동이 갖는 사회윤리적 의미는 차후에 수행할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II. 노동의 위기와 현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중요한데 이에겐 다음의 세 차원으로서, ‘자기표현으로서 노동’, ‘사회적 관계로서 노동’, ‘자연환경의 보호로서 노동’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²⁾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삶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노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점차

1)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어 있는 성서 중에서 『공동번역성서』를 선정하였다. 논자가 수많은 성서번역본 중에서 『공동번역성서』를 선택한 이유는 『공동번역성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성서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작업에 참여하고 국문학자들이 감수한 것으로서,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었다는 것과 우리말 어법에 가장 적합한 번역 성서라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여러 교단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번역 성서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하는 모든 성서 구절은 『공동번역성서』로 할 것이다. 또한 『공동번역』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의 신명(神名)도 직접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느님”과 “야훼”로 제한하여 사용할 것이다. 『공동번역 성서』(대한성서공회, 1991).

2) Dorothee Sölle, 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한국신학연구소, 1993), 134-191쪽 참조. 원래 이 개념은 마르크스의 노동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정배, 「노동신학의 이론적 고찰」, 『신학과 세계』 제21호 가을(1990), 127쪽 참조.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1. 실업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실업(失業)이 이미 일반화되었다. 이에 대한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군은 짧은 기간의 근로에 머물고 있는 구직자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으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³⁾ 실업자의 증가는 불완전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장기 실업이 만연할 경우에 취업 자체가 우선적인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의 안정이나 노동 조건의 양호와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앞으로 실물부문의 부실이 가시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던 계층에서 구조조정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⁴⁾ 그야말로 겨우 노동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자신의 노동에서 의미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자본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축적되면서 육체노동은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과 “20 대 80의 사회”⁵⁾라는 말이 회자(膾炙)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할 사람들은 실업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⁶⁾ 인간의 존엄성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돈벌이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⁷⁾ 돈벌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커녕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일췌이다.

노동이 여전히 인간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여기는 사회에서 노동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곧 ‘실업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3) 황수경, 「실업자 95만 명·구직단념 17만 명… ‘실업대란’ 현실화」,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16일자.

4) 김용성, 「실업 공포 청년 → 여성 → 아빠로 확산」,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19일자.

5) Hans Peter Martin & Harald Schumann, 강수돌 역, 『세계화의 뒷』(영림 카디널, 1997), 26쪽.

6) Jeremy Rifkin,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민음사, 1996), 31쪽.

7) 위의 책, 236-237쪽.

파괴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즉 그것은 노동자 자신의 인간성 파괴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 하느님과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킨다. 이는 실업으로 인해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과 섬김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 임흥빈은 실업이 실업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반인들이 막연히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실업은 당연히 제일 먼저 거론되는 소득의 감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자 개인의 영혼과 정신, 육체적 건강을 갉아먹는 실존의 위기로 작용함을 지적한다.⁸⁾ 쥘레는 소외된 인간의 노동을 '매춘'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는 자신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임금노동자들의 노동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록 고수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형편은 그나마 나아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노동 또한 시장에서 교환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기에, 그 역시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따라서 노동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⁹⁾ 노동의 소외는 노동자 자신이나 생산물, 그리고 생산행위로부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¹⁰⁾를 다루면서, 이 소외 현상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에서와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에서까지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¹¹⁾ 이와 같은 문제는 실업의 축소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실업은 일반적이며 또한 만연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생존이 걸린 고용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업자들,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업자든 은폐된 실업자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8) 임흥빈, 『세계화의 철학적 담론』(문예출판사, 2002), 125쪽.

9) Dorothee Sölle, 앞의 책, 108쪽.

10) 소외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론가는 '헤겔'이다. 그러나 이를 자본주의적 경제의 생산체제에서 드러나는 모순으로 발전시켜 체계화한 이론가는 '마르크스'다. 그는 노동자의 소외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에서 노동의 소외가 경제적 강제에 의해 자본에 포섭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서글픈 운명을 지적했다.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력을 팔아넘긴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과 자기 자신의 분리를 겪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는 노동과정에서 소외되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수행한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되고,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된다. 심의보, 『직업윤리』(백산출판사, 1998), 196쪽 참조.

11) Miroslav Volf, 이정배 역,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한국신학연구소, 1993), 51-62쪽.

2. 비정규직 확산

포레스터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가치하락은 당연한 귀결로, 삶의 조건에서 노동이 배제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처참한 고통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고 말한다.¹²⁾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명예 퇴직과 조기 퇴직 그리고 정리 해고가 일반화되면서 정규직 비율이 줄어든 반면,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움으로써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¹³⁾ 불완전 고용의 증가는 자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침체는 대체로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실업의 위협에 놓이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과 같은 불완전한 고용은 노동 시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경향을 띠면서 빈곤의 굴레에 갇히게 만든다.¹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임금은 그 절반도 안 되고, 성과급이나 보험 등의 기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단기간의 고용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계약 없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일을 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노동자이다. 이에 따라 노동의 연대가 가장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어 갈등을 일으키곤 한다.

자본은 시장 경제에서 유연성을 새로운 원리로 들고 나와서 유연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을 회수해서 한층 더 자유롭고 유연한 노동 시장이 있는

12) Viviane Forrester, 김주경 역, 『경제적 공포』(동문선, 1997), 28쪽.

13) 노동부의 분류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을 가리킨다. 일용직과 고용 계약이 1년 미만의 임시직이 비정규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직, 시간제 노동, 일부 파견 노동, 인턴직 등이 실제로는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이향순, 「21세기 한국 사회와 기독교」, 정원범 엮음, 『21세기문명과 기독교』(목회자신문사, 2004), 192쪽.

14) David M. Gotdon, *Theories of Poverty and Underemployment: Orthodox, Radical, and dual Labor Market Perspectives*(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1972) 참조.

지역으로 이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자본이 요구하는 유연성은 정규직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제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노동 생애를 걷게 되었다. 누구나 유연성과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수 있다. 누구나 실업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노조원과 비노조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로 분할되어 갈등할 것이 아니라 단결과 연대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¹⁵⁾ 안드레 고어즈는 이를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이라는 책 제목으로 극화해서 표현했다. 그는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노동 없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도래를 노동 시간의 단축, 네 시간의 창조적인 노동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¹⁶⁾

3. 신자유주의의 확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지구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미국과 영국을 휩쓸었던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 조치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회들까지 확산되었다.¹⁷⁾ 이윤극대화 와 확대재생산을 위한 경쟁은 더 이상 특정 국민 경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세계 경제 수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¹⁸⁾

각국의 경제는 서로 맞물려 있고 상업적인 은행과 사업체는 이미 경제적 국경을 넘어서 있다. 이미 컴퓨터 연결망을 통해 전 세계가 한 순간에 연결되면서, 국제무역의 통합과 국적을 초월하는 금융자본의 확산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장 규제의 철폐를 통한 자본주의의

15) 강원돈, 『살림의 경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한국신학연구소, 2001), 31쪽.

16) 이향순, 앞의 논문, 238쪽.

17)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John Gray, *False Dawn: The Delusions of Global Capitalism*, 2nd ed.(Granta Books, 2002) 참조.

18) 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주의에서는 빈부양극화, 갑작스러운 불황, 고용의 불안정과 환경 파괴, 약소국의 수탈, 인간성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됨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근식, 『자유와 상생: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기과량, 2005), 187쪽.

극대화라는 논리는 생산의 세계화로 연결된다. 국제화된 시장조건 아래서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독점 자본가들은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생산기지를 아예 해외로 옮기거나 생산 공정의 국제적 분업에 근거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일에 나섰다. 결국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삶의 처지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전 세계 취업인구의 경제활동 종류별 구성은 지난 20년 동안에 급격히 변했다. 농업과 어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는 1970년의 22%에서 1990년대에는 12%로 떨어졌다. 제조업 부문의 취업인구는 같은 기간에 25%에서 22%로 떨어졌다. 그러나 상업, 운송, 은행 및 서비스 등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는 같은 기간에 42%에서 56%로 늘어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국한해서 보면 제3차 산업은 1970년도에는 40%이던 것이 1990년에는 57%로 늘어난 반면, 농업과 어업은 3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노동력은 점점 더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경제활동 분야들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는 마치 자신이 일종의 초거대 고용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 고용주에겐 전 지구적 시장은 '현재적'인 방법으로 경영되는 '단일기업체'일 따름이다.¹⁹⁾ 이에 따라 자본은 국가제도 와해와 경제적 국경 붕괴, 수백만에 이르는 빈곤층 양산으로 귀결된 거시 경제적 정책을 통해 최대이윤추구라는 자기 목적을 실현해 왔다.²⁰⁾

이러한 추세는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지구화에서 비롯된다. 자본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임금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신자유주의 상황 아래서 사회가 “20 대 80의 사회”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경제 개입이 축소되어 자본이 더욱 쉽게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노동의 현실은 더욱 고달파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자본과 기술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과정과 생산과정은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19)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 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한울, 1998), 65-66쪽.

20) Michael Chossudorsky,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당대, 1998), 13-14쪽.

최근 인류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재앙을 경험하고 있다. 엘니노 현상, 라니노 현상 등 예측 불허의 이상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태풍, 폭설, 흑한, 흑서, 기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큰 산불까지 일으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한사온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변화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효과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효과를 낳는 가스의 5분의 1이 제3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림파괴, 열대림 파괴에서 비롯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벌채로 인한 삼림파괴는 과중한 외채를 갚기 위한 달러조달의 압박 속에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III. 노동의 구약 성서적 의미

노동권의 위협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노동하는 인간의 자기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에 실업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개인과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대해, 실업의 심각성과 바람직한 노동관을 정립하기 위한 근거로서 구약성서의 노동윤리로 노동의 근거·자세·한계·휴식을 살펴본 후, 사회윤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동의 근거와 노동신앙

구약성서는 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구약성서는 노동을 죄의 결과로 보는 개념이 있다.²¹⁾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의 동산에서 하느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 것을 계명으로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하느님이 금지한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노동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저주가 내려졌다.²²⁾ 이 구절이 그 유명한 원죄설(原罪說)의 근거이고, 노동의

21) 하버마스(J. Habermas)는 노동 자체가 인간의 타락 이후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경택, 「노동과 '쉼'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해」, 『교육목회』 26권 가을(2005), 27쪽.

기원이다. 이에 따라 노동을 인간의 타락에 따른 죄의 결과라고 이해한다. 인간의 노동을 매우 힘든 삶의 과정으로 말하는 성서 구절도 있다.²³⁾ 이것은 노동이 인간의 일평생 주어진 무거운 짐이며 수고와 고뇌로 가득 찬 허무한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러한 구약성서의 노동관이 구약성서 전체에 면면히 흐르는 맥(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을 “인간의 죄에 대한 벌(저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노동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받은 벌이라고 이해한다.²⁴⁾ 이러한 주장의 성서적 근거로 위에 제시한 창세기 3장 17-19절을 언급한다.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말 가운데 일부이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 즉 남편을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저주한다. 창세기 1장 29-30절의 창조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도 자연의 열매와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결과 저주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기원은 타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곧 인간이 노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제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노동은 인간의 숙명이 된 것이다.²⁵⁾

인간의 노동에 대한 기원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견해는 창세기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기 전에 그들은 이미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22) 창세기 3장 17-19절.

23) 사람이 하늘 아래서 제아무리 애를 태우며 수고해 본들 돌아올 것이 무엇이었는가? 날마다 낮에는 땀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죄어 걱정해 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다(전도서 2장 22-23절).

24) 이러한 견해에 대한 가톨릭의 주장인 교황의 회칙도 있었다. “교황 네오 11세는 ‘노동은 사실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지만 죄의 표징 아래에서 세상 안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라고 말했으며 네오 12세는 ‘거기에는 심오한 사상, 즉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그의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땅에서 그의 빵을 얻게 하기 위해 노동을 부과했다’라고 하였다.” 권철호, 「회칙 〈노동하는 인간〉의 노동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 9쪽.

25) 케누(M. Chenu)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노동의 의무적인 성격을 속죄사상과 연결시켰고, 메네(A. Menes)는 구약성서의 원역사(Urgeschichte)의 사회정치적인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노동이 행해지지 않았고 노동 자체는 저주라고 전제하였다. 하경택, 앞의 논문, 27쪽.

이에 대해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돌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²⁶⁾ 이 구절에는 창조 이전의 시간이 묘사된다. 이때는 초원의 식물과 경작지의 채소는 없었지만, 동시에 비와 사람도 없었다. 초원의 초목은 비만 오면 충분하지만, 경작지는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하느님은 자신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다.²⁷⁾ 쥘레는 ‘하느님의 모습대로’라는 말 속에는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노동하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다.²⁸⁾ 강원돈도 노동윤리의 신학적 근거로서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 인간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한다.²⁹⁾ 바로 이런 이유로 인간은 노동을 하려는 내적 추진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15절도 인간의 노동을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다.³⁰⁾ 이 구절에서 “동산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노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세기 2장 18-20절에는 “일”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드러난다. 아담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 짓는 “일”을 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하느님이 여자를 만드는 이유가 아담의 일(노동)이 과중하여 그 일을 도와줄, 즉 함께 노동해야 하는 노동자로서 여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 이후 그 징벌로서 노동이 주어졌다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만약 노동이 하느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저주를 감당할(용서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또 한 번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손규태는 노동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실업이 갖는 문제를 심각한 저주로 이해하여 실업극복은 기독교 윤리적 실천과제로서 그 어떤 문제보다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준다.³¹⁾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 이전에 이미 노동을 함으로

26) 창세기 2장 5절.

27) 창세기 1장 26-27절.

28) Dorothee Sölle, 앞의 책, 103쪽.

29) 강원돈, 『인간과 노동』(민들레책방, 2005), 14쪽.

30)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창세기 2장 15절).

31) 손규태, 「노동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명상」, 『말씀과 교회』 20권 겨울(1998), 35-36쪽.

써 자신의 존재론적 의의를 갖는다. 인간은 창조질서의 하나로서 피조물이며 동시에 창조질서를 가꾸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한 하느님의 뜻에 따른 노동자이다.

질레는 노동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실현하는 하느님의 공동창조자임을 말한다.³²⁾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경작할 것을 명령하였고, 모든 동물의 이름 짓는 일(노동)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육체적 노동(경작: 나뭇가지를 치고 밭을 가는 노동)과 정신적 노동(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짓는 노동), 이 두 가지 모두 해야 함을 명령하였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위대한 것도, 더 중요한 것도 결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노동관은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모두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창세기 1장 27-28절에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명령이 주어진다. 하느님은 에덴동산을 운영하고 돌보기 위해 아담을 그곳에 두었다.³⁴⁾ 인간은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을 완전히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노동관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견해는 노동을 하느님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창조의 동참으로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동산을 건설하자마자 곧바로 인간을 동산 안에 데려가서는 에덴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명령한다. 하느님은 피조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고, 이 선물을 돌보고 지키는 것을 인간의 과제로 주었다. 노동은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창세기 1장 26-30절과 2장 15절³⁵⁾에서 인간은 자연을 돌보는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피조세계는 하느님이 인간의 노동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느님은 낮과 밤, 파종기와 수확기³⁶⁾라는 자연적 순환을 유지할 것을

32) Dorothee Sölle, 앞의 책, 102쪽.

33) 베스터만은 구약성서의 창조 설명에서 인간은 완전한 통일체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영과 육, 또는 몸, 영, 혼으로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성서는 어떤 분리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영혼과 육체를 모두 중시한다. Claus Westermann, *Cre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p. 78.

34) 창세기 2장 15절.

3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약속했다. 이로써 노아는 다시 땅에 충만할 것과 그것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³⁷⁾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조된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피조세계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피조세계의 관리자로서 청지기직을 수행할 소명(召命)을 부여하였다.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위한 청지기라는 사실은 땅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게 속하고,³⁸⁾ 또 제7년에는 땅을 묵히는 안식년을 지켜야 하며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왕에게도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³⁹⁾는 율법의 주장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이 인간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에게 통치권을 허락한다는 창조기사에도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규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구약성서의 노동관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은 하느님을 노동하는 존재로 묘사한다는 점이다.⁴⁰⁾ 예레미야를 보면, 하느님이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⁴¹⁾ 시편에서도 노동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보인다. 시편에서도 하느님의 노동에 대해 “우주를 하느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증언한다. 이 말은 하느님이 창조행위를 할 때, 인간이 노동하는 것과 같이 손을 사용해서 창조를 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하느님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다.⁴²⁾ 또한 “하느님 자신이 하는 일은 크고 깊다든지”, “하느님의 일은 놀랍게 오묘하고 훌륭하다”는 구절들이 있다.⁴³⁾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은 옛새 동안 천지창조의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보고,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는 말을 한다.⁴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휴식하였다.⁴⁵⁾

36) 창세기 8장 22절.

37) 창세기 8장 15-22절.

38) 레위기 25장 참조.

39) 그러나 나뭇은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였다.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열왕기 상 21장 3절).

40) 이 말은 태초부터 노동이 있었다는 말과 같다. 즉 태초에는 하느님의 창조라는 노동이 있었고 그 노동은 하느님의 일이었다.

41) 예레미야 18장 6절.

42) 이에 대한 성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시편 8편 3절, 시편 8편 6절, 시편 19편 1절.

43) 시편 92편 5절, 시편 104편 24절, 시편 111편 2절.

44) 보시기에 좋았다(4절), 보시니 참 좋았다(12절), 보시니 참 좋았다(18절), 보시니 참 좋았다(21절), 보시니 참 좋았다(25절), 보시니 참 좋았다(31절). 바르트는 여섯째 날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을 창조한 날이 여섯째 날에 있었다. 하느님은 첫째 날(일요일) 빛을 창조하였고, 여섯째 날(금요일) 인간을 창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섯째 날 인간과 생태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노동을 하였고, 안식 후 첫날인 하느님의 창조 시작 일(일요일)에 영혼만이 아닌 육체도 함께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직접 노동한 하느님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쉴레는 인간이 지닌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속성인 ‘사랑과 노동’으로 이해한다. 노동은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모습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⁴⁶⁾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의 모습대로 만든 인간을 단순한 방관자나 제3자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은 인간을 자신과 힘을 합해 자연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그 사명을 부여하였다.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이야기로 바벨론의 창조서사시 “에누마 엘리쉬”(기원전 1900-1700년경)가 있다. 여기서 인간 창조는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높은 계급의 신들은 이 반란을 무마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낮은 계급의 신들이 하던 노동을 전담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들은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그 반대다. 하느님이 인간을 위하여 일하며 인간을 위해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창조질서이다. 또한 휴식도 하느님 자신이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면서 인간에게도 휴식을 명령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질서 보전과 관리에 인간을 참여시킨다.⁴⁷⁾

출애굽기는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느님의 지체를 받아 정교한 공작을 하는 장인들이었음을 알려준다.⁴⁸⁾ 이러한 기록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시기에 참 좋다”는 선포가 피조물이 그 자체로 완결된 우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며, 피조물의 완성은 피조물 가운데서 활동하는 하느님의 노동의 시작을 뜻한다고 본다.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1(Zurich, 1947), p. 249를 강원돈, 『인간과 노동』, 22-23쪽에서 재인용.

45) 창세기 2장 2절.

46) Dorothee Sölle, 앞의 책, 103쪽.

47) 한국신학연구소 성서교재위원회, 『함께 읽는 구약성서』(한국신학연구소, 1992), 33쪽; 장일선, 『구약세계의 문학』(대한기독교서회, 1994), 331쪽; Dorothee Sölle, 위의 책, 29쪽 참조.

48) 출애굽기 31장 1-11절 참조.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노동에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노동은 하느님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인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겨졌다.⁴⁹⁾ 인간의 노동을 해가 뜨는 것이나 사자가 사냥하러 나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말하기도 한다.⁵⁰⁾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누리는 것을 긍정하기도 한다.⁵¹⁾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성서는 손으로 하는 노동을 경멸하지 않았으며 수고하는 것을 높이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의무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노동을 수행해야 하며, 하느님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⁵²⁾

2. 노동의 지혜와 휴식

구약성서 잠언에서는 노동을 지혜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⁵³⁾ 자기의 주어진 노동에 게으른 자를 경계한다.⁵⁴⁾ 근면을 권장하고 나태를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다.⁵⁵⁾ 태만의 특징들을 열거한다.⁵⁶⁾ 얼빠진 구실, 거짓 핑계, 지나친 잠, 식사중에까지도 게으름을 피우고 꿈틀거림, 자기 과대평가, 게으른 사람이 순간적인 자기의 정욕에 몰두하는 것 등은 자기의 파멸을 재촉한다. 게으른 사람은 적절한 시간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잠언은 노동을 창조주가 마련해 준 축복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 가지 가능성 앞에서 있다. “얻느냐? 잃느냐?, 대지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냥 놓아

49) 출애굽기 31장 참조.

50) 시편 104편 21-23절.

51) 전도서 3장 22절.

52)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잘 감당하면 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축복 아래 놓인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다.” 오성춘,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90쪽.

53) 잠언 6장 6-15절.

54) 잠언 18장 9절.

55) 잠언 10장 4절, 잠언 13장 4절, 잠언 12장 24절, 잠언 24장 30-34절, 잠언 19장 15절, 잠언 19장 15절, 전도서 10장 18절 등.

56) 잠언 26장 13절, 잠언 26장 15절.

두느냐?⁵⁷⁾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과 빈궁한 삶이 노동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⁵⁸⁾

부(富)의 축적도 주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책임을 지닌 인간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사회적 대립을 근면과 태만의 결과로 제시한다.⁵⁹⁾ 자유와 예속, 지배와 압제도 노동의 경주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⁶⁰⁾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이와 비슷한 규칙을 확언하고 있다.⁶¹⁾ 전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⁶²⁾ 게으름의 결과를 개인의 체험과 관련하여 교훈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엉겅퀴가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하였더니 가난이 부랑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들었다.⁶³⁾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최악의 근원은 적절한 때에 노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에 있음을 말한다. 잠언은 태만의 한 유형으로 수면벽을 지적한다.⁶⁴⁾ 이어서 태만을 경계하면서 열심히 노동해야 함을 일깨워준다.⁶⁵⁾ 지혜롭게 일한다는 말은 좋은 때를 알아낸다, 즉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발적으로 때를 맞춰, 일터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맡겨진 노동을 잘 감당한다면 그 자신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의 노동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⁶⁶⁾ 그리고 그의 수고가

57) 잠언 20장 4절.

58) 잠언 14장 23절.

59) 잠언 13장 4절.

60) 잠언 12장 24절.

61) 잠언 11장 16절; 12장 27절; 14장 23절; 21장 5절 참조.

62) 전도서 10장 18절.

63) 잠언 24장 30-34절.

64) 잠언 19장 15절.

65) 잠언 6장 6-11절.

66) 시편 128편 2절.

축복 받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며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⁶⁷⁾ 그렇다면 무조건 지혜로운 때를 맞춰 열심히 노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노동의 결과에 있어, 하느님과 관계성은 불필요한 것인가? 구약성서는 이에 대해 노동의 결과를 하느님의 권한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함과, 그에 따라 노동의 지나친 집착을 경계할 것을 일깨워준다. 노력은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오직 하느님의 자유로운 축복이다.⁶⁸⁾ 노동을 하면 돈을 번다는 일반적인 기대는 하느님의 축복의 결단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다. 하느님은 인간의 의지와 성취 사이에도 개입하여 차질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⁶⁹⁾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겠다고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행위는 냉엄한 허사를 가져오기도 한다.⁷⁰⁾

인간의 자립과 자유의지에도 한계가 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없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노동이 소용 없듯이, 하느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각오가 없이는 재물과 부의 축적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⁷¹⁾ 즉 인간은 재산으로 인하여 허위⁷²⁾나 분쟁⁷³⁾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성공은 잘못된 확신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⁷⁴⁾ 이와 같이 구약성서는 노동의 결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노동에 임하는 자세와 결과 그리고 유의사항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게으름을 피우면 재미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며, 노동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중독, 노동의 우상화)이나 이기적인 욕망에 따른 부의 축적은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노동과 함께 이해할 것으로 휴식을 제시하고 있다. 휴식은 하느님의 귀중한 선물로 여겨지고 있다. 성서는 휴식의 근본 사상을 위대한 구원의 선물로 규정하고 있다.⁷⁵⁾ 시편에서도 잠을 통한 휴식을 강조하고 있다. 하느님은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어 노동하는 사람도 기껏해야 근심

67) 이사야 62장 8절, 이사야 65장 23절.

68) 잠언 10장 22절.

69) 잠언 16장 1절.

70) 이는 노동 그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거나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부의 축적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자기파괴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하고 볼 수 있다. 시편 127편 1-2절 참조.

71) 잠언 11장 4절.

72) 잠언 19장 1절.

73) 잠언 17장 1절.

74) 잠언 11장 28절.

75) 신명기 12장 9절, 25장 19절, 여호수아 21장 34절, 사무엘하 7장 1절, 열왕기하 8장 56절.

중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뿐임을 말한다.⁷⁶⁾ 개인에게 주어지는 휴식의 선물은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결부되어 있다.⁷⁷⁾

잠언은 평안한 잠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행복을 묘사하였다.⁷⁸⁾ 전도서에서도 인간이 노동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⁷⁹⁾ 그러므로 지나친 열심이 휴식을 박탈하였던 것처럼, 지나친 노동이 휴식을 빼앗아갈 수 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과 부름에 응하는 삶의 표징(表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휴식 속에 삶의 여유와 예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경배도 나타낼 수 있다. 성서는 지나치게 노동에 집착하는 사람의 헛된 수고와 그 무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휴식은 하느님의 귀중한 선물이며,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는 휴식이 하느님의 귀중한 선물이기애, 휴일을 제도로 고정시킨 안식일 계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내용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쉴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휴식의 근거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는 데 있다.⁸⁰⁾ 휴일의 근본적 의미는 선물로 받은 해방을 기억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행동을 기억하는 데 있다. 또한 휴식의 근거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느님은 엿새 동안 노동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고 이렛날은 휴식하였다. 안식일이 강조하는 노동의 멈춤은 경제착취 수단으로서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들의 인권보호 차원으로 인식된다.⁸¹⁾ 그러므로 기독교는 잘못된 사회구조 안에서 힘든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인간의 해방을 위해 대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노동과 휴식”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인간에

76) 이는 노동 그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거나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부의 축적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자기파괴에 대한 신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시편 127편 1-2절.

77) 시편 95편 7-11절.

78) 잠언 3장 24절.

79) 전도서 5장 11절.

80) 신명기 5장 15절.

81) 박경철은 출애굽의 안식일 선포가 단지 주일 성수라는 종교생활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적 행위의 의미임과 동시에 사회정의 실천의 계명임을 말한다. 박경철, 「안식일,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새롭게 하자」, 『기독교사상』 통권 578호(2007년 2월호), 82쪽.

게는 노동과 휴식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인간에게 노동만이 있고 휴식이 없다면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다.

노동 후에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하느님이 부여한 자연스러운 생존을 위한 창조질서이다. 브루너는 인간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며, 인간이 노동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⁸²⁾ 그는 휴식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한다. 휴식할 줄 아는 인간만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이 휴식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기도를 하게 되고 ‘특별한 날’에는 기도와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창조된 것으로 본다.⁸³⁾ 그가 역설한 이 ‘특별한 날’은 안식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날은 노동을 중단하고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3. 노동의 사회윤리적 의미

구약성서는 노동의 차원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을 시기하여, 이를 막기 위해 부역 감독관들을 이스라엘인에게 세우고, 무거운 짐(부담)을 지워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억압으로 인하여 혹독한 강제노동의 고역을 겪게 되었다. 이집트 왕의 사악한 시도는 반대로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내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집트 왕의 억압은 실패하고 말았다.⁸⁴⁾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의 선조⁸⁵⁾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⁸⁶⁾ 해방을 약속하였다.⁸⁷⁾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형태는 노동현장에서 억압의 구조로 나타나곤 한다. 이렇게 주어지는 노동은 인간에게 성취감을

82)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p. 389.

83) *Ibid.*, p. 391.

84) 출애굽기 1장 12절.

85) 하느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였다.

86) 출애굽기 2장 23-25절.

87) 출애굽기 3장 7-8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으로 자존감의 비하를 가져다줄 뿐이다. 이사야 65장 17-25절은 새로운 창조질서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바벨론 포로기를 마감하는 때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과 지표가 담겨 있다. 이사야서는 새로운 창조에 의해 탄생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정의”, 그 중에서도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⁸⁾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의 결과가 정당하게 누려지고 정당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상은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양극화된 사회질서⁸⁹⁾ 속에서 배태되었다. 이와 같은 양극화된 사회질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려는 평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되었고, 예수로 인해 펼쳐지는 신약 시대의 하느님의 나라 운동으로 이어져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예수가 그의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할 때 회당에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를 읽어 자신이 펼쳐나갈 하느님 나라 운동의 방향을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⁹⁰⁾

다음으로 노동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율법의 경제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율법의 경제규정에서는 가족농장에서 노동하는 것이 표준으로 간주된다.⁹¹⁾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땅이 회복될 수 없다면,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노동을 맡아서 그를 부양해야 한다.⁹²⁾ 땅이 없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은 그들이 주울 수 있도록 밭의 이삭과 포도원의 열매를 할당받는다.⁹³⁾ 노동의 정상적인 형태는 가족의 토지에서 노동하는 것이었다.⁹⁴⁾ 임금노동은 희년 때까지 자기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88) 이사야 65장 21-22절.

89) 소수의 부유한 지배 계급과 다수의 가난한 피지배 계층이 확연하였다.

90) 루가의 복음서 4장 16-19절.

91) 레위기 25장 25-41절.

92) 레위기 25장 35-38절.

93) 레위기 19장 9-10절.

94) 레위기 25장 39-40절.

사회적 안전장치였고,⁹⁵⁾ 땅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졌다.⁹⁶⁾ 그러므로 가족별로 분배된 토지가 보호받는다면 개인이 노동할 기회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의 형제는 그를 보살펴주어야 한다.⁹⁷⁾ 그를 부양해야 하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지닌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⁹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나그네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모든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잘 대우해야 하고, 노동한 그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다.⁹⁹⁾ 이러한 조항들은 이스라엘인이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외국인에게 빚을 져서 노예가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를 사서 노예상태로부터 구해야 한다.¹⁰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다.¹⁰¹⁾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망쳐 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성읍들 가운데 거처할 곳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¹⁰²⁾ 노동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유일한 예외는 레위 지파일 뿐이다.¹⁰³⁾ 이들은 생존을 위한 생산수단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종교적인 기능 이외의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은 이들을 위해 소득의 십일조를 바칠 의무가 있었고, 이들은 하느님에게 바친 제물의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 소비할 권리도 갖는다.

최근 실업의 위협 속에서 일자리 나눔의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기득권을 줄이는 결단으로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자는 뜻이다. 그야말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시작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이 개인이나 개별 단체에서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95) 신명기 24장 15절.

96) Donald Hay, 전강수 옮김,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6), 82쪽.

97) 레위기 25장 25절.

98) 레위기 25장 39-40절.

99) 신명기 24장 14-15절.

100) 레위기 25장 47-55장 참조.

101) 이 구절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적용의 이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출애굽기 23장 9절.

102) 신명기 23장 15-16절.

103) 신명기 18장 1-8절 참조.

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의 재분배를 공유하는 노동의 자리를 나누고, 창출해 나가는 작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실제로 가능한 대안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쪼개는 방식으로 일자리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절제하며 휴식하는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보다 급진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고용구조와 임금조정의 최적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오늘의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휴 노동인력을 서비스 산업 분야에 흡수할 필요가 있다. 민간서비스 분야보다는 국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일시적인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소득 이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실업극복의 방안으로 '녹색뉴딜정책'을 내놓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깊이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병훈은 '녹색뉴딜정책'이 대부분 건설토목공사에 치중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5.7%가 단순생산노무직에 해당되어 고학력 청년들이나 여성 및 중·고령자들의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인턴제도도 당장의 화급한 청년실업 문제를 모면하려는 땀질식의 미봉책일 뿐임을 지적한다.¹⁰⁴⁾

오히려 교육, 보건, 환경 분야에서 국가의 투자를 늘리고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생태계 안정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장기적인 공공 서비스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과 국가 영역 바깥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와 자율적 자급경제를 결합시키는 이중경제(二重經濟) 구상에 근거하여 노동사회를 지양하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노동세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¹⁰⁵⁾ 그러므로 국가는 공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을 갖도록 해야 하고, 기독교는 노동의 정당성을 생활에 각인되도록 일깨워나가야 한다.

104) 이병훈, 「정부의 '문제투성이' 일자리 대책」, 《한국방송대학보》, 2009년 9월 28일자.

105)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세계에 관한 구상」, 『신학사상』 118호(2002년 9월), 196-221쪽 참조.

그러나 부의 재분배에 앞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가 더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15장 채무탕감(1-6절), 시혜적 나눔의 실천(7-11절) 그리고 전격적인 노예해방(12-18절)은 사회평등법의 한 예로서, 자본과 노동의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금 노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 본문은 “7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면제해 주어라”¹⁰⁶⁾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¹⁰⁷⁾ 메이스(A. D. H. Mayes)는 이 관습의 기원은 땅을 공동소유하고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 경작하도록 허락받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¹⁰⁸⁾ 이 면제의 기본적 이념은 땅은 야훼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경작하는 대리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⁰⁹⁾

노동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연관되어,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브루너는 노동의 참된 의미를 나와 하느님 그리고 이웃이라는 삼중적인 관계로 본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에게 봉사하게 되는 노동관이 성립된다. 이와 같은 삼중적인 관계에서 파악되는 노동의 의미문제는 결국 삶 자체의 의미라는 궁극적인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된다.¹¹⁰⁾

우리는 왜 노동하는가? 노동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브루너는 노동의 의미가 단순히 생계유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노동하고 싶어 하는, 즉 노동하지 않고는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동이 자존(self-respect)의 의미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노동을 종교적인 의무, 즉 하느님의

106) 신명기 15장 1절.

107) 이러한 과격한 “면제의 해”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가능한가? 구약성서의 이 구절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사회구조 속에서 실현가능할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이 이념은 실제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재단,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은 신명기 15장의 인간적인 부의 재분배, 인격적 나눔의 경제윤리를 실행하는 좋은 예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러한 빈곤 퇴치와 채무탕감 등을 위한 교회부설 신용협동조합이나 기독교연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나눔에 나서야 할 것이다.

108) Andrew D. H. Mayes, *Deuteronomy,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ers, 1979), pp. 247-248.

109) 출애굽기 23장 10-11절, 레위기 25장 2-6절, 느헤미야 10장 32절은 제2성전시기 초에 7년째 유희지 면제와 빚 면제를 실시하였다.

110) Emil Brunner,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 Vol,II(London: Nisbet Co, 1949), p. 63.

소명으로 여기며 임하는 사람들도 있다.¹¹¹⁾

IV. 나오는 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화를 획득하고 의식주의 해결과 교육 등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노동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노동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실업 사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위한 수단을 빼앗기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참여와 사회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는 올바른 노동관을 수립할 의무를 지닌다. 인간 자신보다 부차적인 인간의 능률과 결과를 더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되찾는 일일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인간이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동이란 그 성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따라, 인간이 사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인간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고귀한 활동으로, 그리고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는 노동의 힘든 현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일치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이 결합을 통하여 인간은 존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조건에 의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동기와 쾌락충족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다양한 노동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이다. 이런 다양한 노동의 의미를 아우를 수 있는 이해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초월적인 동기

111) *Ibid.*, p. 57.

부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신앙의 기저(基底)로서 구약성서가 말하는 노동의 의미를 통해 오늘 우리의 노동현실을 직시하고, 실천적 신앙으로서 노동의 참된 가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은 하느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하느님에 의해 긍정되고 축복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를 도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이 하느님의 축복에 의해 제정되고 긍정되었다면 현재에도 이러한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의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 형태가 어떠하든지, 고용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노동은 여전히 하느님의 축복 아래서 피조세계에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악화된 조건 속에서도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노동하는 인간의 주체성이 인정되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하는 인간이 대체될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이 생산한 재화의 분배에서 소외되어서도 안 되며, 노동을 통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보전하는 일에서 배제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노동은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공동번역성서』. 대한성서공회, 1991.
- 강원돈, 『살림의 경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한국신학연구소, 2001.
- _____, 『인간과 노동』. 민들레책방, 2005.
- _____,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세계에 관한 구상」. 『신학사상』 118호, 2002년 9월.
- 권철호, 「회칙 〈노동하는 인간〉의 노동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경철, 「안식일,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새롭게 하자」. 『기독교사상』 통권 578호, 2007년 2월호.
- 손규태, 「노동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명상」. 『말씀과 교회』 20권 겨울, 1998.
- 심의보, 『직업윤리』. 백산출판사, 1998.
- 오성춘,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 이근식, 『자유와 상생: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기파랑, 2005.
- 이정배, 「노동신학의 이론적 고찰」. 『신학과 세계』 제21호 가을, 1990.
- 이향순, 「21세기 한국 사회와 기독교」. 정원범 엮음, 『21세기문명과 기독교』. 목회자신문사, 2004.
- 임흥빈, 『세계화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2002.
- 장일선, 『구약세계의 문학』. 대한기독교교회, 1994.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 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 하경택, 「'노동'과 '쉽'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해」. 『교육목회』 26권 가을, 2005.
- 한국신학연구소 성서교재위원회, 『함께 읽는 구약성서』. 한국신학연구소, 1992.
- Donald Hay, 전강수 옮김,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6.
- Dorothee Sölle, 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93.
- Hans Peter Martin & Harald Schumann, 강수돌 역, 『세계화의 뒷』. 영림 카디널, 1997.
- Jeremy Rifkin,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 Michael Chossudorsky,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 Miroslav Volf, 이정배 역, 『노동의 미래 미래의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93.
- Viviane Forrester, 김주경 역, 『경제적 공포』. 동문선, 1997.
- 김용성, 「실업 공포 청년 → 여성 → 아빠로 확산」.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19일자.

이병훈, 「정부의 '문제투성이' 일자리 대책」. 《한국방송대학보》, 2009년 9월 28일자.
황수경, 「실업자 95만 명 · 구직단념 17만 명 ... '실업대란' 현실화」. 《한겨레신문》, 2009년
4월 16일자.

Brunner, Emil,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 Vol.II, London: Nisbet Co, 1949.
_____, *The Divine Imperativ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Claus Westermann, *Cre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Godson David M, *Theories of Poverty and Underemployment: Orthodox, Radical,
and dual Labor Market Perspectives*. 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1972.

Gray John, *False Dawn: The Delusions of Global Capitalism*, 2nd ed, Granta
Books, 2002.

Mayes Andrew D. H, *Deuteronomy,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ers, 1979.

국 문 요 약

오늘 우리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삶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노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실업(失業)은 이미 일반화되었다. 삶의 조건에서 노동이 배제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처참한 상실의 고통 가운데 버려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겨우 노동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자신의 노동에서 의미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돈벌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커녕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거기에 더해서 자본과 기술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과정과 생산과정은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입장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윤리관의 전거(典據)로서 구약성서가 말하는 노동관을 통해 바람직한 노동의 의미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구약성서의 노동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의무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노동을 수행해야 하며, 하느님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동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근면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전거로서 구약성서의 노동관은 이기적인 욕망추구라는 개인적인 노동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개인과 하느님과 이웃이 더불어 사는 삼중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틀에서 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분배정의와 나눔의 실천도 가능할 것이다.

투고일 2009. 10. 12.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5.

주제어(keyword) 노동(labor), 실업 극복(overcoming unemployment), 휴식(rest), 하느님의 노동(labor of God)